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변수에 대한 일고 -다언어의 보편적 학습을 위하여-

김명광*

요약 이 글은 보편 문법을 개별 문법화하는 장치인 매개변수가 형태론적 차원의 다양한 언어 현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통사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항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타갈로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밝힌다. 언뜻 보기에 핵 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무질서해보여서 매개 변수가 이항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언어 자료를 살펴본다. 하지만 이는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원칙적으로 상호 독립적인과 명백히 극성을 가지는(핵 초나 핵 말이나) 언어는 이 두 부분의 매개 변수가 상호 암시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점, 그리고 매개 변수가 개별 문법으로 진행되게 하는 작용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개별 문법 항목을 만들어 주는 개별 규칙을 만들지 않는 점을 볼 때 형태론 핵 방향 매개 변수도 역시 이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핵 순서 매개 변수 해당 언어에서 원리적 차원에서 투사되는 것일 뿐 예외적인 언어 현상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형태론적 핵 방향의 매개 변수 작동 이후에 그 방향성에 따라 어기 범주의 선택 경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세 언어에서 매개 변수의 이항성 개념은 다양한 언어 현상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

주요어 매개 변수, 이항성, 핵 방향, 극성, 암시적, 독립적, 통사적, 형태적, 핵 방향

1. 서론

이 글은 보편 문법을 개별 문법화 하는 장치인 매개 변수가 형태론적 차원의 언어 현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를 인지적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학, kimmk0857@daegu.ac.kr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범언어적으로 구현되는 보편 문법과, 개별 언어를 구현시키는 매개 변수 설정은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언어 습득 과정은 사고를 언어로 연결시키는 일종의 표상적 과정으로서, 이 두 연결과정은 가능한 한 습득의 부담이 없어야 빠른 시간 내에 개별 화자의 언어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편 문법의 집합이 매우 소수의 원리로 구성된다는 것과, 매개 변수로 처리되는 과정이 매우 단순하게 작동한다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곧 보편 문법의 집합이 무한하거나 매개 변수가 예측 불가능하다면, 4세 이전에 언어 습득을 완성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최소주의의 견해에서 가정하는 원리들도 몇 가지로 제한된다는 가정이나, 매개 변수의 구성이 이항적으로 구성된다는 가설들은 언어 습득의 신속성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된다¹.

이항적인 매개 변수²란 그 집합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이항적인 구성이며 이 두 개의 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없다는 상보성(이항의 문법 항목 중 한 쪽의 항목이 발현되면, 다른 한쪽은 발현되지 못하는 상보적 개념)을 지닌 연산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단순한 과정을 통하여 보편 문법이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별 문법으로 전환 된다. 그런데 그 매개 변수는 그 구성 요소인 두 개의 문법 항목이 등가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무표의 개념, 다른 한쪽은 유표의 개념을 갖는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한다. 이러한 비등

1 이 글이 후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전자 즉 원리적 측면은 가능한 한 다루지 않는다.

2 이항적 매개 변수의 개념에 대하여 대표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의 과제는 매개 변수가 매우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항가(values)라는 것이 판명되면…… 아마도 일련의 이항적 선택(binary choices)의 관점에서 그 성격을 규정지를 수만 있다면, 좀 더 단순화될 것이다. 아동들의 습득 과제에 있어서 이러한 단순화된 “매개 변수 - 설치 장치 개념(parameter-setting conception)”은 아동이 두 가지 상태(position)(끊기/연결하기) 중 하나에 있어서 일련의 개폐기들(switches)(상호 다른 구조 매개 변수를 표현하는 이러한 각각의 개폐기)을 설치해야 할 때 가시화된다.…… 물론 개폐기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데에는 개폐기가 한 상태가 아니면 다른 상태라는 장치로 설치되어야만 하고, 동시에 두 상태가 나타나는 장치로 설치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Radford, 1997: 20).

이외에서 Gibson 외(1994: 407-454), Partha Niyogi 외(1996: 161-193) 등도 이항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개 변수가 다항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에 Atkinson(1990: 13), Ayoun(1998: 75-76), Stenson(1990: 194)이 있다.

가 가치를 통하여 언어 습득자들은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효율적인 인지 장치를 이해하게 되고, 이 인지 장치를 통하여 언어를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된다.³ 예를 들어 핵 순서가 매개 변수로 주어진다면, 핵 초 언어가 발현되면 전치사 구조, 동사 선행 보어 구조, 동사 선행 굴절 기능 요소가 연속적으로 발현되게 된다. 이 원리는 원리 자체에 대한 습득 부담량을 그만큼 줄여준다는 데에서 생성의 기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개념의 매개 변수가 어떻게 실제 언어 자료에서 투영되는지에 대하여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 변수를 중심으로 밝혀본다.

2.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 변수

김기혁 역(2008: 148-156)에서 보면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문장 순서와 접사 결합의 상호 연관성을 언급하였다. 곧 동사구가 문말에 오는 경우는 접미사 형성 언어가 접두사 형성 언어보다 5:1로 높고, 동사가 중간에 나타나는 언어(주어-동사-목적어)는 이 둘의 분포를 2:1로 보고 있다. 한편 Lieber(1992: 26-76)에서는 통사론적 차원의 핵과 주변부의 순서를 형태론적 차원과 연관시켜 해당 언어 구조의 선호 순서를 밝혔다. Lieber(1992)의 논의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핵 초 언어일 경우에는 접두사 선호 구조를, 핵 말 언어일 경우에는 접미사 선호 구조를 가진다는 언어 간 이항적 구성을 언급하였다. 우선 핵 초 언어로 알려진 타갈로그어를 예로 들어 이를 살펴본다.⁴

타갈로그 NP, PP 그리고 AP의 단어 순서는 매우 명료하다. 일반적으로 보충어, 수식어, 명사어 모두가 자신의 핵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핵 초 언어이다. 이에 따른 타갈로그어의 굴절 구조 체계는 아래 (1)이다.

3 한편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연산 과정과 관련하여 매개 변수의 또 다른 연산 과정도 있다. 그것은 한 언어 항목의 구조가 결정될 경우, 다른 항목도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이른바 암시적 보편 원리의 발현이 그것이다.

4 여기에서 드는 예문은 Lieber(1992: 40-49)에서 대부분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1) 허가 조건

가. $X^n \rightarrow X^{[n-1, n]}$...: 순환이 $n=0$ 인 경우에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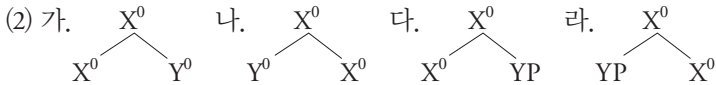
나. i. 핵이 보충어와 비교하여 초두에 나타난다.

ii. 핵은 명시어와 비교하여 초두에 나타난다.

iii. 수식어는 명시어와 비교하여 초두에 나타난다.

다. 선 또는 후 핵 성분은 X^{\max} 또는 X^0 이다.

Lieber(1992)에서 보면 통사적 핵과 비핵의 순서에 따라 형태적 차원의 형식은 (2)와 같이 4가지 경우의 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위 (2) 중에서 타갈로그어는 핵이 수식어, 보충어 그리고 명시어와 비교하여 초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핵방향 매개 변수(허가 조건)의 발현을 통하여 '좌측 핵' 즉 '핵 초' 구조인 (2가, 다)가 선택된다. 이에 따라 타갈로그 범주 변환 파생 단어는 대부분 (3)과 같은 접두사 결합 도출형이다.

(3) 가. N[N-N] 복합어

matang-alwin

눈 매 '날카로운 눈'⁵

나. A[A-N] 복합어

amoy - isda

냄새 물고기 '물고기의 냄새'

다. V[V-N] 복합어

magbigay-galang

주다 존경 '존경을 보여주다'

라. 동사로부터 파생된(통사적) 합성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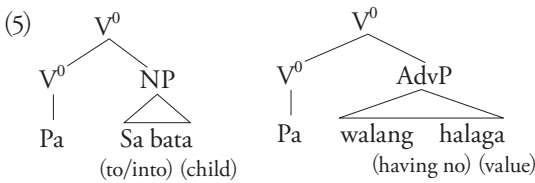
5 -ng은 복합어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 선행 요소의 뒤에 나타나는 연결소(connector)이다.

pamatid-uhaw

없앴 목마름 ‘목마름을 없앴(음료수)’

또한 타갈로그어는 구절 파생어를 허용하여 (2다)의 핵 초 구조(X^0 -YP)를 가질 수 있다. 타갈로그어 구절 파생의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통사 범주와 결합하는 동사화 접사 pa가 있다. 이 pa는 아래에서 보듯이 처격 sa와 NP가 결합한 통사적 구나, 부정 구절에 연결되어 동사를 형성한다.

- | | | |
|--------|---------------------------|------------------------------------|
| (4) 가. | (na)sa bata | p-um-asa bata ⁶ |
| | in the child's possession | ‘come into the child's possession’ |
| 나. | walang halaga | magpawalang-halaga |
| | having no value | ‘render valueless’ |



그런데 핵방향 매개변수가 엄격하다면 핵 말 구조 파생어(2나,라)(Y^0 또는 $YP-X^0$)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우 드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달리 (6)와 같이 핵 후행 접미사 파생어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 | | | |
|--------|------------------|----------------------|
| (6) 가. | -an]{N,V}____]N | |
| | giik ‘타작’ | giikan ‘타작 장소’ |
| 나. | -an]V____]N | |
| | umaway ‘싸우다’ | awayan ‘상대편과 싸움’ |
| 다. | -in]N____]A | |
| | magalaga | ‘돌보다’ alagain ‘돌볼 것’ |
| 라. | -an]N____]A | |

6 접두사 -um-과 접두사 mag-는 동사들과 결합하는 주어 주제 접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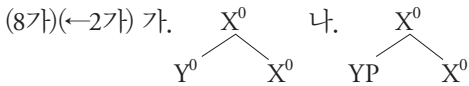
putik ‘진흙’ putikan ‘진흙으로 뒤덮인’
 마. -in]N____]A
 antok ‘잠’ antokin ‘잠든’

위에서 접미사들이 핵인 이유 중 하나는, 접미사들이 선행 성분과 결합한 후 범주를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구성은 이항적 매개 변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핵 말 매개 변수가 투영되는 한국어를 보자. 우선 핵 말 매개 변수에 의한 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7) 가. 핵들은 보충어와 관련하여 말미에 위치한다.
- 나. 핵들은 명시어와 관련하여 말미에 위치한다.
- 다. 핵들은 수식어와 관련하여 말미에 위치한다.

이는 핵 초 언어인 타갈로그어와 달리 핵이 다른 성분과 결합할 때 모두 후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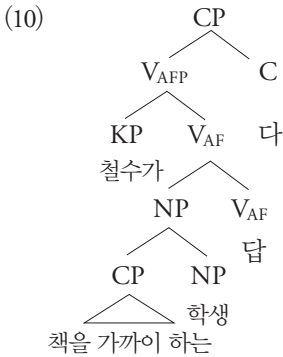
우선 한국어가 접미사와 접두사의 분포를 볼 때 접미사가 상대적으로 많고 (접두사: 174, 접미사: 368⁷) 또한 접미사의 종류 중 개방 부류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언어이다⁸. 따라서 (8가)가 보통의 파생의 결합형이다. 접두사의 경우에도 핵이 결합형 내부에서 후행 성분에 해당되기 때문에(이를 달리 말하면 범주 변환 기능을 갖는 것은 선행 접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실질 형태소에 의하기 때문에), 다른 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개 변수의 발현이 투명하다. 다만 단어 초과 어기가 결합하는 (8나: YP-X⁰)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렇다고 하여 단어 초과 어기를 허용하는 접사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 국어에서도 형용사 파생 ‘-답-’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통

7 연세한국어사전(2008) 참조.

8 김명광(2004) 참조.

사적 구를 선행 어기로 한다는 점에서 이 예에 속한다(김창섭, 1996; 송철의, 1992).

(9) 철수가 책을 가까이 하는 학생답다.



(이정훈, 2006: 496)

다음에 영어의 구절 구조와 핵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영어는 보충어가 후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핵 초 언어에 해당하지만, 명사어나 수식어의 경우 수의적으로 핵 말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여 형태론적 투영은 타갈로그어와 한국어에 비해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1) 가. NP the destruction of the city

나. AP fond of ice cream, proud of their daughter

다. PP in the hole, up a tree

라. VP devoured the pizza

(12) 가. The children devoured the pizza.

나. The children's destruction of the treehouse.

(13) 가. a large, gray dog (제한적 수식어 선행 위치)

나. *a dog large, gray

우선 영어 통사부의 보충어가 핵 뒤에 위치하며(11), 명시어나 한정 수식어는 핵 앞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12, 13) 허가 조건은 아래와 같다.

(14) 허가 조건: 영어

- 가. 핵들은 보충어와 관련하여 초두에 위치한다.
- 나. 핵들은 명시어와 관련하여 말미에 위치한다.
- 다. 핵들은 수식어와 관련하여 말미에 위치한다.

따라서 (14)와 같은 매개 변수 설정과 함께, 형태론적 구성에 있어 보충어와 핵의 결합이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염두해 볼 때 “Y⁰-X⁰, YP-X⁰” 구조를 예상할 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접두사 en-과 de-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접사에서만 허용될 뿐이다.

(15) 범주-변환 접두사

- de- [v____]N debug, dethrone, defuzz
- en- [v____]N encase, enrage, enthrone

실제로 영어에서 범주 변환 파생의 대부분은 아래 (16)과 같이 우측 핵 구조이며 접두사의 경우도 범주 변환의 주체는 후행하는 성분에 있다.

(16) 가. 범주-변환 접미사.

i.	-ness]A____]N	happiness
	-ity]A____]N	curiosity
	-ian]A____]N	civilian
	-ism]A____]N	purism
ii.	-y]N____]A	fruity
	-ish]N____]A	monkish
	-ous]N____]A	monstrous
iii.	-er]V____]A	baker
	-ee]V____]A	employee

	-ation]V____]A	restoration
iv.	-able]V____]A	washable
	-ive]V____]A	impressive
v.	-ify] {N,A} ____]A	glorify, solidify
	-ize] {N,A} ____]A	standardize, unionize

나. 접두사

counter-] {N,A,V} ____]A	counterweight, counterintuitive, countersign
un-] ____]A	unhappy
re-] ____]V	rewrite
pre-] ____] {V,N}	precook, preschool
mis-] ____]V	misjudge
ante-] ____]N	anteroom
co-] ____]N	co-conspirator
ex-] ____]N	ex-governor

다. 어근 합성어

- [A-N]N greenhouse, hardhat
- [N-A]A sky blue, ice cold
- [N-N]N file cabinet, towel rack
- [A-A]A red hot, worldly wise
- [V-N]N drawbridge, pickpocket

구절 복합어의 경우에도 (17)과 같이 범주 변환 기능은 후행하는 성분에 달려있다.

(17) 구절 복합어

- [N[NP floor of a birdcage][N taste]]
- [N[PP over the fence][N gossip]]
- [N[VP ate too much][N headache]]

이상을 살펴볼 때 형태론적 매개 변수와 관련된 언어 현상은 아래와 같이 집약될 수 있다.

(18) 가. 매개 변수(허가 조건)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과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다.

나. 영어의 경우 핵이 보충어에 선행하여 좌측 핵 구조가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우측 핵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 명백한 핵 초 언어의 경우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좌측 핵 구조를 발현시키며(타갈로그어), 명백한 핵 말 언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한국어)를 발현시킨다.

라. 중간적인 언어(영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를 발현시킨다.

마. 핵 초 언어의 경우 핵 말 구조 파생어(2나, 라)(Y^0-X^0)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우 드물어야 하지만 핵이 후행하는 접미사 파생어도 상당수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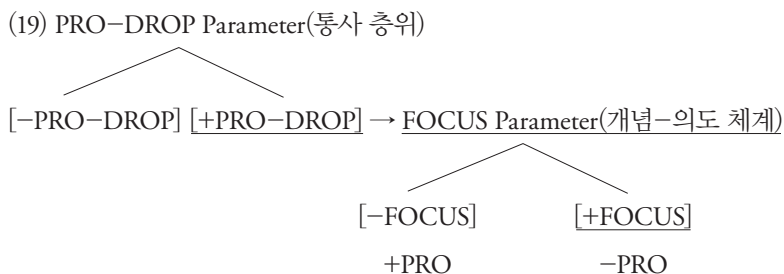
바. 타갈로그 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보편적인 반면 핵 말 언어인 한국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 영어의 경우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글에서 분석한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는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이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상당히 망설여진다. 우선 핵 초 언어인 타갈로그어의 경우 핵이 후행하는 파생어가 있다는 점은 상보적 관계를 함의하는 이항적 특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영어의 경우 (18가)와 관련하여 좌측 핵 구조가 보편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통사적 구를 허용하는 타갈로그어와 달리 한국어나 영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형태론적 매개변수가 이항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나 형태론적 차원의 이항성

을 포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매개 변수들이 상호 관련이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PRO와 관련된 통사부 매개 변수의 실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이탈리아어의 경우 풍부한 굴절체계(bevo(1인칭 단수), bevi(2인칭 단수), beve(3인칭 단수), beviamo(1인칭 복수), bevete(2인칭 복수), bevono(3인칭 복수)) 주어 대명사(Io, Tu, Lui/Lei, Noi, Voi, Loro)로 인해 PRO 매개 변수 중 [+PRO-DROP]이 작동한다. 그 이유는 굴절 체계의 어미가 인칭과 복수를 담당하므로 주어 대명사가 없어도 주어의 인칭과 복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탈리아어가, 경우에 따라서 주어 대명사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언뜻 보기에 매개 변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선택성에 위배된다. 하지만 이탈리아어에서 주어 대명사는 아무 경우에도나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자의 강조와 같은 초점 의도가 개입될 때 주어 대명사가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개 변수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는데, 즉 부분 간 매개 변수가 달리 실현됨을 말해 준다는 것이다. 초점 의도가 발현되는 곳은 통사부가 아니라 개념 의도 체계⁹이기 때문이다. 곧 개념 의도 체계 내에서의 독립적인 인지 장치인 ‘초점 의도와 비초점 의도’라는 매개 변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PRO-DROP] 실현은 [+PRO-DROP] 작동 이후에 발현된다. 이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9 Chomsky는 선택과 병합이라는 구구성조작이 이루어지고 난 후 문자화 이후에 PF 층위와 LF 층위가 있음을 말하였다. 이 층위는 문법 영역과 접합되는 층위이기 때문에 접합 층위(interface level)이라고 부른다. 즉, PF-표시는 조음-인지 체계(articulatory-perceptual system)에 입력이 되고, LF-표시는 개념-의도 체계(conceptual-intentional system)에 입력이 되기 때문이다(이홍배, 1999: 222).

그런데 형태론적 매개 변수의 작동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곧 통사부에서 실현되는 통사론적 매개 변수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으나(상호 암시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부문 간에 매개 변수가 독립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를 명시화하면 매개 변수(허가 조건) 다음과 같이 기술될 것이다.

(20)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 순서에 관여하는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상호 관련이 있다. →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순서에 관여하는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부문 간 독립적이므로 그 순서에 있어서 상호 관여하지 않는다.

만약 형태론적 매개변수와 통사론적 매개 변수의 관계를 (20가)와 같이 수정한다면 영어의 언어 현상(18나)을 설명하기가 편리하다. 즉 통사론적 매개 변수가 핵 초의 성격을 띠지만 형태론적 핵 방향 매개 변수는 핵 말의 성격을 띠는 것은 부문 간 상호 독립적인 매개 변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경우 통사론적 매개 변수는 핵 초의 성격을 띠나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핵 말 매개 변수가 작동한 것이라 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갈로그어와 한국어이다. 그것은 통사적인 핵 방향이 형태론적 핵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곧 독립적인 매개 변수의 실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의 관계성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필자는 명백히 핵 초 언어의 경우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좌측 핵 구조를 발현시키며(타갈로그어), 명백히 핵 말 언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한국어)를 발현시키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매개 변수가 부문 간 암시성을 갖는 관계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첨가해야 한다.

(21) 명백히 극성을 가지는(핵 초냐 핵 말이나) 언어의 경우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상호 연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문간 독립적으로 매개 변수가 작동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을 수정하면 (18나-라)의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18마), 곧 핵 초 언어의 경우(여기서는 타갈로그 어), 핵 말 구조 파생어(Y^0-X^0)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우 드물어야 하지만, 핵 후행 접미 파생어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는 언뜻 보기에 핵 초 언어에 있어서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연관된다는 점과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 듯이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개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곧 매개 변수가 개별 문법으로 진행되게 하는 작용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개별 문법 항목을 만들어 주는 개별 규칙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은 통사적 매개 변수 중 핵 초어나 핵 말이나 하는 현상에 관여하는 핵 순서 매개 변수에 잘 나타난다. 즉 핵 순서 매개 변수 해당 언어에서 원리적 차원에서 투사되는 것일 뿐 예외적인 언어 현상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 매개 변수가 작동하고 난 이후에 특정 문법 항목 자체에 예외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 유표적 현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매개 변수의 또 다른 원소가 발견되는 것뿐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Chomsky, C. (1969)에서 논의한 ‘통사적 복잡성’과 관련된 유표적 현상이 있다.

(21) 가. I told him what \emptyset to do

나. I asked him what \emptyset to do.

(21가)는 잘 알다시피 단거리 원리(Minimal Distance Principle)가 적용되는 구문(①)으로서, what의 주어가 가장 근처에 있는 him을 지시한다(나는 그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말해주었다). 반면에 (21나)는 [-MDP]가 적용되는 구문(나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이다. 후자의 경우 이항적 매개 변수인 단거리 원리를 위반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작용점 지점(언어 대 언어 간의 선택 지점)에서 매개 변수의 두 원소 중 한쪽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21나)의 예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오류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곧 Chomsky, C.(1969)에서 보면 (21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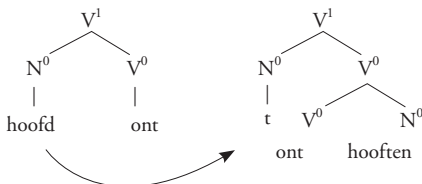
를 +MDP로 해석하는 일관적 오류 출현 시기(5-6세), (21가)를 -MDP로, (21나)를 +MDP로 해석하는 ‘혼재된 오류 출현 시기’(7-8세) 그리고 각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정용 해석 시기(9-10세)가 있다는 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이 글의 논의와 연결시켜 보면, 습득 초기의 경우 (21나)에 대하여 +MDP를 적용 시키는 일관적인 오류 시기는 ‘매개 변수 적용 단계’이다. 습득 중기에 있어서 (21가)를 -MDP(21나)로 해석하거나, (21가)를 -MDP 그리고 (21나)를 ++MDP 식으로 해석하는 시기는 ‘유표성 인식 단계’(무표적인 동사와 ‘요청동사 또는 약속동사’ 제약 인식 단계)이다. 습득 후기에 두 개의 원리를 올바르게 전환 시키는 시기는 ‘매개 변수의 상보적 관계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태적 순서 설정도 매개 변수의 개념이라면 개별 문법 항목을 넘어서 작동해야만 한다. 반면에 규칙의 경우 특정 개별 문법 항목과 관련된 언어 현상의 일부로서 유표성이 감지될 경우에만 형성되는 것이다. 만약 매개 변수와 규칙의 상호 개념이 이와 같다면 타갈로그어의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작동하는 원리는 개별 항목과 상관없이 핵 초 구조를 언어로 발현시키게 된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예를 들어 생산적인 접미사 ‘an, in’은 이 결합형 내부에 나타나는 규칙의 유표성이 인식될 때 핵 말로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간 구조를 제약하는 이항적 매개 변수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통사론과 달리 유표적 매개 변수가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발현되는가는 회의적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통사적인 매개 변수의 실현은 언어 간 실현 후에 ‘시간적 격차’를 두고 유표성이 인지된 후에 발현되지만([+MDP]의 지배적 원리를 습득하고 난 후 [-MDP]의 원리가 적용된다), 어휘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격차로 나타나는 오류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사부의 특성과 어휘부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곧 통사부에서 발현되는 문법 형식은 적격과 부적격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어휘부(형태론적 차원의 부문)는 적격과 부적격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생성 부문이기 때문이다. 형태론 차원의 매개 변수가 경향성 차원에서 우세 구조와 그렇지 않은 구조가 선호되는 것이지, 적격과 부적격을 판단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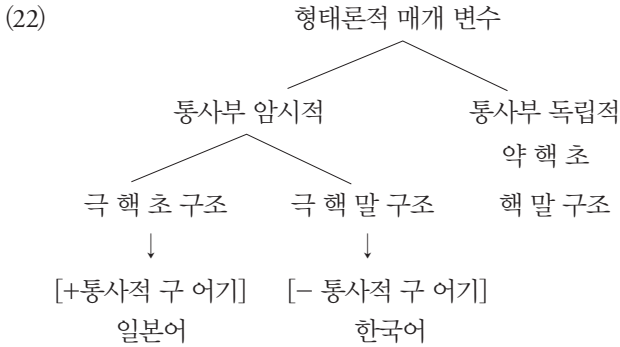
닛째, (18마)와 관련하여서는 형태론적 핵 방향의 매개 변수 작동 이후에 해당 원소에 작용하는 선호적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형태론적 핵 방향의 매개 변수 작동 이후에 그 방향성에 따라 어기 범주의 선택 경향이 달라진다. 타갈로그어의 경우 핵 초 언어가 선택된 후 어기 범주 측면에 관여하여 “통사 구 어기 범주”가 선호되는 반면, 이와 극단에서 있는 핵 말 한국어의 경우 반대로 그 범주가 단어 차원의 어기만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어에서 ‘-답-’은 ‘-답-’ 자체의 유표성으로 인해 핵 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한편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영어의 경우 부문 간 독립적인 형태론적 핵 방향 매개 변수를 갖게 되고 이 변수가 핵 말을 어휘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18사)의 언어 현상(영어가 통사 구를 어기로 허용하지 않는 현상)은 핵 말 매개 변수가 발현되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단어 차원의 어기를 선호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을 염두 해 둘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층적인 형태론적 핵 방향 매개 변수도 이항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형식화 할 수 있다¹⁰.

10 영어의 좌측핵 구조가 매우 드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항적 매개 변수의 개념이 깔끔하게 설명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로 Lieber(1992: 8-74)의 네덜란드어의 범주 변환 접두사에 대한 의미역 견해가 있다. Lieber(1992: 8-74)에서는 의미역 견해를 네덜란드어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네덜란드어는 영어와 허가 조건이 동일하며 또한 접두사가 범주 변환 기능을 갖는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be*, *ont*, *ver*와 같은 접두사가 그것이다. 이 중 *ont-*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ont-</i>	$V[______ N, A]$	<i>onthaaren</i>	<i>to delpilate</i>
		<i>onthoofden</i>	<i>to decapitate</i>
		<i>ontheiligen</i>	<i>to desecrate</i>

Lieber(1992: 8-74)에서는 우측핵 구조가 의미역 할당의 이동을 통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항적 매개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지만, 그 구조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논의와 연관될 수 있음을 밝힌다. 곧 의미역 부여는 이동 이전에 받게 됨으로써 기저 구조에서는 핵 말 구조를 가짐을 말하고 있다.





핵이 통사적인 순서 매개 변수가 명백히 핵 초 또는 핵 말일 경우 형태론적 매개 변수

가. 매개 변수(허가 조건)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사어, 수식어)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다.

나. 영어의 경우 핵이 보충어에 선행하여 좌측 핵 구조가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우측 핵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 명백한 핵 초 언어의 경우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좌측 핵 구조를 발현시키며(타갈로그어), 명백한 핵 말 언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한국어)를 발현시킨다.

라. 중간적인 언어(영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를 발현시킨다.

마. 핵 초 언어의 경우 핵 말 구조 파생어(2나,라)(Y^0-X^0)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우 드물어야 하지만 핵이 후행하는 접미사 파생어도 상당수 존재한다.

곧 명사 *hoofd*는 자신의 의미역을 *ont-*에서 부여받는데 그 이유는 D-구조에서 그 의미역이 *ont-*의 왼쪽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Hoofd*는 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것이 NP보다는 N^0 이므로 핵 이동이 강제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기저 구조를 Y^0-X^0 로 보며 의미가 동기가 되어 이동을 하여 표면적인 구조로 나타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영어에서도 이와 같은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태론적 매개 변수의 발현은 핵 말 구조로 깔끔하게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의미역이라는 또 다른 매개 변수를 가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동의 원인에 대한 유인 자질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필자는 이 견해를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 바. 타갈로그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보편적인 반면 핵 말 언어인 한국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사. 영어의 경우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3. 결론

이 글은 보편 문법을 개별 문법화 하는 장치인 매개변수가 형태론적 차원의 다양한 언어 현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통사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항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타갈로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를 중심으로 밝혔다. 형태론적 매개 변수와 관련된 언어 현상에서 밝혀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개 변수(허가 조건)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과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다.

나. 영어의 경우 핵이 보충어에 선행하여 좌측 핵 구조가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우측 핵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 명백한 핵 초 언어의 경우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좌측 핵 구조를 발현시키며(타갈로그어), 명백한 핵 말 언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한국어)를 발현시킨다.

라. 중간적인 언어(영어)의 경우 우측 핵 구조를 발현시킨다.

마. 핵 초 언어의 경우 핵 말 구조 파생어(2나, 라)(Y^0-X^0)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매우 드물어야 하지만 핵이 후행하는 접미사 파생어도 상당수 존재한다.

바. 타갈로그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보편적인 반면 핵 말 언어인 한국어는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

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 영어의 경우 통사적 구와 결합하여 형태론적 구성을 갖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울러 형태론적 핵방향 매개 변수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만 위 언어 현상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가.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관련이 있다. → 통사적 성분(보충어, 명시어, 수식어)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가 상호 독립적이다.

나. 명백히 극성을 가지는(핵 초나 핵 말이나) 언어의 경우 통사론적 매개 변수와 형태론적 매개 변수는 상호 연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립적인 매개 변수이다.

다. 매개 변수가 개별 문법으로 진행되게 하는 작용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개별 문법 항목을 만들어 주는 개별 규칙을 만들지 않는다.

라. 핵 순서 매개 변수 해당 언어에서 원리적 차원에서 투사되는 것일 뿐 예외적인 언어 현상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매개 변수가 작동하고 난 이후에 특정 문법 항목 자체에 예외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그 유표적 현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매개 변수의 또 다른 원소가 발현된다.

마. 형태론적 핵 방향의 매개 변수 작동 이후에 그 방향성에 따라 어기 범주의 선택 경향이 달라진다. 곧 핵 초 매개 변수가 작동할 경우 그 어기 범주는 통사구 어기 범주를 허용하는 반면, 핵 말 매개 변수의 어기 범주는 단어 차원의 어기를 허용한다.

참고 문헌

- 김기혁 역, 2008, 언어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연구, 태학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이정훈, 2006, 파생접사 ‘-답-’의 통사적 파생, 생성문법연구 16(3), 한국생성문법학회, 491-513.
- 이홍배, 1999, 최소주의 통사이론과 영어, 한신문화사.
- Ayoun, D., 1998, Revisiting Traditional Assumptions in Principles-and-Parameters Theory, Arizona Working Papers in SLAT, 75-76.
- Chomsky, C.,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MIT press.
- Gibson, T. & Wexler, K., 1994, Triggers, Linguistic Inquiry, 25(4), 407-454.
- Lieber, R., 1992, Deconstructing Morphology, Chicago University Press.
- Partha Niyogi, Robert, C., Berwick, 1996, A language learning model for finite parameter spaces, Cognition 61, 161-193.
- Radford, A., 1997, Syntax A minimalist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nson, N., 1990, Phrase structure congruence Government and Irish-English code-switching, Syntax and Semantics, Vol.23, 169-199, San Diego: Academic Press.

A Consideration of Morphologic Head Order Parameter

Myoung-Kwang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larifying the operational process of Binary Morphologic Head Order Parameter(BMHOP) which projects to phenomena of words with materials of languages of Korean, English, Tagalog. The BMHOP which is binary and complementary system is a kind of device to converse Universal Grammar(UG) to individual Grammar. This study also clarifies whether the attributes are the same of one Syntactic Parameter(SP) or not. In order to reach this aims, firstly, I look into the various language materials which seem to be disorder with related to head order, thus BMHOP can not to be projected banarily to the component of morphological level. This study suggest that BMHOP is still valid to morphological level with the modification of The BMHOP concept. The first modification one is that BMHOP is independent on Syntactic Parameters in principle. The second one is that the SP gives relational hint to BMHOP only if the language have head polarity, but can not if the language is neutral. The third one is that parameter takes only a role of “starting point of operation”, but can not take a role of making individual rules. The fourth one is that BMHOP generally projects the morphological component as a principle not to related with exceptional language phenomena. The fifth one is that have the constraint of word base criteria(XP or X) after one unit of set of BMHOP generally projects the morphological component. If the one unit of set of BMHOP is Pre Head language, the base is XP. If the one is Post Head, the base is X mainly.

Keywords Parameter, Universal Grammar, Polarity, binary system, suggestive, Morphology level, Syntactic level. Head order

* Daegu University, Professor, International Korea Language Education, kimmk0857@daegu.ac.kr